

사랑과 그리움, 정한으로 빛은 미투리를 형상화한 안동 월영교

이영천 | 작가

달(月)은 백옥경(白玉京)이다. 옥황상제가 산다는 하늘의 서울이다. 차안(此岸=인간이 사는 고통이 많은 현실 세계)이 아니다. 교묘하고 은은한 달빛은 외로움이자 커다란 상실이다. 달나라엔 어여쁜 신녀 항아(姮娥)가 산다. 달은 그래서 늘 여성이다.

홀로 남게 된 여인이 달 기운을 흠뻑 들이킨다. 그 힘으로 다시 견뎌낼 용기를 얻는다. 커다란 상실에서 오는 여인의 깊은 외로움이 어서 걷히기를 달은 기원한다. 그러하듯 달은 그리움이고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백제 여인이 달을 보며, 집 떠난 입을 그리워한다. 생계를 위해 행상에 나선 지아비는 소식도 없다. 풍문으로 실려 오는 편지 한 장 없이, 길을 나선 지아비는 종적이 묘연하다. 홀로 집을 지키는 지어미는 그리움과 근심으로 노래한다. 달은 속절없이 높고 밝기만 하다. 은은한 달빛이 온 천지를 그리움으로 가득 채운다. 골골이 저자를 누비고 다닐 지아비 걱정에, 달빛 서정으로 마음이 흠뻑 옮겨 든다. 백제 여인이 노래한 정읍사(井邑詞) 배경이다.

들하 노피곰 도드샤 /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쏠져재 너러신고요 / 어귀야 즌디랄 드디올세라 / 어귀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귀야 내가논디 점그를세라 / 어귀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젊은 미라와 편지

낙동강이 휘감아 도는 안동 땅엔 유독 달과 관련된 곳이 넘쳐난다. 월곡면, 사월리(沙月里), 엄달골, 월영대... 달빛 수북이 쌓인 산하가 애뜻한 사랑을 담아냈다 하여 '달골'이라 부른다던가, 달의 얼굴과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애뜻한 한으로 남아 월영(月影)이라 했다던가? 꿈같은 풍경에 고이 깃든 달빛이 낙동강 모래사장에 수북이 쌓이는 곳이라든지...



만물이 소생하는 포근한 봄의 월영교 소경(小景). ©경북나드리

낙동강 남쪽 안동 시가지 맞은편, 신도시를 지으려 땅을 파헤친다. 이를테면 안동의 강남으로 때는 20세기 막바지인 1998년이다. 귀래정 서쪽 정하동 산 중턱, 이름 모를 무연고 묘 하나가 발굴된다. 무덤 주인이 미라로 나타난다. 나이는 갓 서른 남짓이다. 같이 묻힌 부장품들도 온전하다. 가지런히 줄을 바뀐 위쪽 여백까지 빼곡하게 써 내려간 한글 편지(58×34cm)와 고운 한지에 싸인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미투리(짚신처럼 삼은 신) 한 쌍, 아내의 장옷, 그리고 아이 배냇저고리가 함께다. 젊은 미라는 애절함 듬뿍 담긴 아내의 편지와 어린 아들의 배냇저고릴 고이 품에 안아 영면에 들었다. 미라의 부모와 형 편지도 함께다. 왜란(倭亂)이 일어나기 6년 전인 1586년에 무덤을 썼다.

31살 지아비는 다정다감하다. 지어미는 지아비의 자상함과 깊은 사랑에 충만한 행복을 누린다. 형제간 우애는 깊고 어린 아들은 튼실하며, 양 부모님은 강건하시다. 태중엔 아이도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젊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버리고 만다. 어린 아들 이름이 '월'이다.

아내가 혼으로 쓴 애절한 사랑 편지가 412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다. 편지를 받은 이는 명확히 밝혀지나, 애석하게도 편지를 쓴 아내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아내는 이승에서 다하지 못한 애뜻한 사랑을 죽은 남편에게 고백한다. 편지글은 간결하나 절절하다. 서른 즈음의 아내가 느끼는 사랑과 상실감이 오롯하게 묻어난다. 꿈에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그리움과 깊은 사랑이 모두를 숙연케 한다.

관을 덮은 명정은 무덤 주인이 철성 이씨 임을 보여준다. 주인공을 찾아 나선다. 고성 이씨 이응태(李應台, 1556~1586)로 밝혀지고, 문중 입회하에 발굴이 이뤄진다.

절절한 사랑 편지

편지 호칭이 생경하다. 당시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당신이나 여보가 아닌 '자내'다. 글의 시작은 '월이 아버지께 - 병술년 유월 초하룻날 집에서' 로 시작한다.

자내 상해 날드려 널오디 돌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흠뻑 죽자 하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내 묻져 가시는
날하고 주식하며 뉘기 걸하야
엇디하야 살라 하야 다 더디고 자내 묻져 가시논고

당신이 늘 내게 이르시길, 둘이서 머리가 하얗게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시더니, 나를 두고 어찌하여 당신 먼저 가시나이까. 나와 자식은 누구에게 기대어 어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버리시논고.¹⁾



분수처럼 물을 뿜어내는 월영교의 봄. ©경북나드리



나머지 부분도 지금 말글로 옮겨 본다.

「당신 내게 어떻게 마음을 주시었고,
나 또한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다주었던가요.
우리가 같이 누울 때면 난 언제나 당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를 어여뻐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다른 이들도 정말 우리와 똑같은까요?”
어찌 그런 일들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
건가요. 당신을 여의고 아무래도 나는 살 수 없을 듯해요.
빨리 당신께 가고만 싶어요. 부디 나도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선 잊을 순 없을 것이고,
서러운 뜻도 끝이 없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들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설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 편지 보시거든 내 꿈속에 나타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부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배 속의 아이를 낳으면 당신께선 꼭 할 말 있다 하시곤
그리 가버리시니, 배 속 자식 낳으면
도대체 누굴 아비라 부르라는 건가요. 아무런들 내 맘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시면 그뿐이지만,
아무런들 내 맘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쓰지
못하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거든,
부디 내 꿈에 나타나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서라도 당신을 만나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답니다.
부디 몰래 와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끝이 없지만, 이만
적습니다.²⁾

1) [네이버 지식백과] 안동대학교 박물관 - 사랑과 영혼의 환생(박물관 기행, 이병학)에서 각색하여 인용.


2) 안동대학교 박물관 - 사랑과 영혼의 환생(박물관 기행, 이병학) 중 '임세권 안동대 사학과 교수' 풀이를 각색하여 인용.

한 쌍의 미투리를 형상화한 다리

무덤이 있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낙동강 상류 안동댐 바로 아래, 2003년 부부의 애절한 사랑이 다리로 이어진다. 낙동강을 가로질러 월영공원과 민속촌을 잇는다. 보행자를 위한 다리다. 강바닥에 콘크리트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는 타원형으로 아치 트러스를 짜 엮는다.

아치 트러스 위에 통 널빤지로 상판을 깔고, 온통 나무로 만든 난간을 두른다. 난간은 전통 건축의 완(卍)자형 무늬로 채웠다. 강 중간에 멋들어진 정자 월영정(月影亭)이 서 있다. 정자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놓인 다리는 젊은 남편이 천당으로 신고 간, 아내의 머리카락으로 삼은 한 쌍의 미투리다. 천국으로 떠나버린 사랑과 상실, 애절함과 그리움의 신발이다. 미투리를 형상화해 다리 평면선형을 'S'자로 했다. 길이 387m, 너비 3.6m 나무 상판을 한 보행자 전용 다리다.

안동시는 시민께 다리 이름을 지어달라 했다. 주제는 '달'이다. 그리움과 애처로움으로 남게 된 젊은 아내의 정한(情恨)을 그득 담아낸 이름이어야 한다. '달의 자태나 그림자'를 의미하는 서정

가득한 월영(月影)이라는 이름이 뽑힌다. 월곡면 사월리에서 안동댐 수몰로 1976년 옮겨진 '월영대'가 인접한 곳에 자리해 있다. 온통 밝은 달빛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젊은 아내의 마음으로 남는다. 묵직한 안개라도 내려앉은 날이면, 환영 속에서 그리운 입을 만나는 착각에 빠져든다. 꿈에서라도 그리운 남편을 만나 얘기하고자 했던 젊은 아내의 한이 서린 까닭인가? 밤이면 교묘한 달빛이 수면에 안겨 온다. 다리는 젊은 아내의 마음처럼, 그 위를 걷는 모든 이를 사랑으로 위로한다. 상실과 슬픔은 포근히 안아준다. 오색으로 밝게 빛나는 경관조명은 변치 않을 사랑을 축수한다. 월영정이 절묘한 중심역할을 맡아준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충만한 사랑과 행복을 꿈꾼다. 싸구려 커피처럼 일회용으로 마시고 버리는 사랑이 아니다. 지고지순하고 속 깊은 사랑이다. 삶과 죽음으로도 갈라 세우지 못할 사랑이다. 생사일여(生死一如)로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이다. 서럽고 슬프지 않은 별리(別離)가 어디 있으랴. 월영교와 월영정에 들면, 그런 아픔을 뛰어넘는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물안개가 끼어 환상적인 자태를 드러내는 월영교의 아침. ©경북나드리



안개 자욱한 몽환적 분위기의 월영교 밤 풍경. ©경북나드리